

우주정복의 길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사변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대성공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으시여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으시여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 참가한 일군들과 우주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주개발을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깡그리 바치시며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새로 개발한 대출력발동기는 단일발동기로서 추진력을 80tf이다.

이번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은 작업시간을 200s로 하



고 발동기연소실의 연소특성, 각종 변

발동기의 지상분출시험을 통하여 추진력을 비롯한 발동기의 기술적지표들이 예정값에 정확히 도달되었으며 작업전기간 모든 계통들의 특성값들이 안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완전히 확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시험을 진행할 때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순간 천둥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대출력발동기에서 거대한 불줄기가 세차게 뿜어져나왔다.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

발동기의 지상분출시험을 통하여 추진력을 비롯한 발동기의 기술적지표들이 예정값에 정확히 도달되었으며 작업전기간 모든 계통들의 특성값들이 안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완전히 확인하였다.

대출력발동기가 완성됨으로써 국가우

주개발 5개년계획기간에 정지위성운반로

케트를 확고히 개발완성 할 수 있는 과학

기술적담보가 마련되었으며 지구판측위

성을 비롯한 각종 위성들을 세계적수준

에서 발사할 수 있는 운반능력을 원만히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시험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짧은 기간에 당에서 준 과업을 홀륭히 결사관철한 국가우주개발국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주과

학기술과 우주산업은 국력을 평가하는 중

요한 기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 실현을 위한 우주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광활한 우주정복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주개발과 리용은 우리 당의 중요한 방침이며 국가적으로 계속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우주개발을 위성개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각이한 용도의 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하여 우리 나라를 가까운 몇 해 안에 정지위성 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이 관철되어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우주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전례 없는 기적적인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번 시험성과에 토대하여 위성발사준비를 다그쳐 끝냄으로써 적들의 비렬한 제재압살책동으로 허리띠를 조여매면서도 변심없이 우리 당만을 믿고 당을 따라 끗끗이 살며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큰 승전소식을 안겨주자고 당부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고산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고산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사과꽃이 활짝 피여났을 때부터 파일이 무르익은 오늘까지 원수님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일군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농장종업원들이 온 한해동안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고산과수종합농장에 어려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파일생산을 해마다 늘여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시의 령도밑에 펼쳐진 철령아래 사파바다에서 세세년년 파일파도가 세차게 일어나고 파일향기가 가득 넘쳐나게 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파일을 먹이

시려고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여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르시었던 전망대에서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고산과수종합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시고 파일발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가지마다에 탐스러운 열매가 정말 많이 달렸다고 하시면서 마치도 사과알들에 빨간 물감을 둘인 것만 같다고, 철령아래가 온통 붉게 보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파일보관고를 돌아보시고 618건설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수천t 능력의 현대적인 파일보관고를 흠탑을 데가 없이 홀륭히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의도를 받들고 고산과수종합농장을 세계굴지의 청춘파원으로 전변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한 그들

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에서 마련해준 룬전기재와 지게차 등을 보아주시면서 농장에 동력분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과수기계들을 더 보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고산과수종합농장이 올해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더 높이 비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과수의 가치를 들고나가는데서 전국의 앞장에 설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살림집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 대한 문제, 매 분

장들마다에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으며 과수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돼지목장들을 더 건설하는데 대한 문제, 방울식판수체계를 완비하며 중소형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 문제를 풀데 대한 문제, 현대적인 파일가공공장을 일떠세울 데 대한 문제 등 농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게 파일을 풍족하게 공급하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결사관철의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고산땅이 생겨 처음 보는 파일대풍을 이룩하였다고, 이 농장은 당정책을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전형단위, 모범단위이라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고산과수종합농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군민 협동작전의 위력으로 농장을 사회주의 문명강국의 체모에 맞는 표준농장,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과수농장으로 더욱 홀륭히 전변시키며 파일생산에서 해마다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우주는 인류공동의 재부이다. 무변광대한 우주공간에는 인류가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개발리용할수 있는 거대한 자원이 있다.

오늘날 국가발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국제적인 추세로 되고있는 우주개발에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있으며 우주과학기술발전에 큰 힘을 넣고있다. 우주과학기술은 나라의 종합적 국력을 파악하는 중요한 징표로, 최첨단기술경쟁의 초점으로 되고있으며 우주는 날을 따라 인간과 더욱 가까워지고있다.

일찌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주정복의 원대한 구상을 펴시고 우주개발의 새 역사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해 이미 자신의 독자적인 힘과 기술로 우주정복의 길을 개척한 공화국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주강국으로 더 힘차게, 더 빨리 도약하고있다.

우주강국의 휘황한 앞날

그이의 결심과 의지에 따라 우주강국건설을 지향하고있는 조선은 우주개발기구들을 선진과학기술의 요구에 맞게 확대강화하고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실용위성들을 쏴올리는 것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우주개발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행하고있다.

공화국의 평화적우주리용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있는 때에 얼마전 우주과학부문에서는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성공하였다. 시험을 통하여 추진력을 비롯한 발동기의 기술적지표들이 예정값에 정확히 도달되었으며 모든 계통들의 특성값들이 안정하게 유지된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대출력발동기의 완성으로 정지위성운반로케트를 개발완성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답보가 마련되었고 지구판축위성을 비롯한 각종 위성들을 발사

할수 있는 운반능력을 갖출수 있게 되었다.

그날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으시고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개발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우주과학기술과 우주산업은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각이한 용도의 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하여 우리 나라를 가까운 몇해안에 정지위성보유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우주정복의 길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사변은 과학기술강국, 우주강국건설을 구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비범한 령도와 자력, 자강으로 최첨단기술을 돌파하는 주체과학기술이 높은 자랑찬 결실이다.

오늘 지구상에는 풍부한 자

원과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주를 정복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수다하다. 또 위성제작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하여도 발사체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공화국은 남의 힘, 남의 손을 빌려서가 아니라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 자기의 지혜로 우주강국의 지위에 올랐다. 남들처럼 좋은 환경속에서가 아니라 적대세력의 항시적인 제재와 압력, 끈질긴 방해책동속에서 허리띠를 조이며 누구나 쉽게 이를수 없는 세계최첨단과학기술의 령마루에 당당히 올라선것이다. 적대세력의 전대미문의 포악무도한 초강도제재속에서도 자립의 마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자력의 동음을 더 크게 울리며 자강으로 흥하는 강국의 래일을 앞당겨오고있다.

지난 2월 열어 불은 대지

를 박차고 만리대공으로 치솟아오른 지구판축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적황색화염과 거대한 메아리는 적대세력의 제재에 맞선 공화국의 명쾌한 대답이였다. 우주정복자들에게 연구과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며 우주개발분야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고무격려하시고 때로는 국가우주개발국 위성판제종합지휘소도 현지지도하시며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실용위성개발과 발사, 판제에서 나서는 과업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와 보살펴심속에서 우주개발분야에서는 기상예보 등을 위한 새로운 지구판축위성개발에서 비약적인 성과가 이룩되고 위성개발의 새로운 높은 수준인 정지위성연구활동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강력은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원으로 자기 앞길을 개척하는 힘이다. 생명체가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수 없는 것처럼 나라나 민족이 자강력이 없으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없다.

자강력의 높이이자 국력의 높이이고 번영의 높이이다.

자력으로 개척한 조선의 위성개발 및 발사국의 지위는 누가 부정한다 해서 달라지지 않으며 우주정복과 평화적인 위성개발은 조선이 결심하고 랙한 길이고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하는 최첨단돌파전이며 세계에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자주적권리행사이다.

우주조약과 같은 국제우주법에도 규제된바와 같이 우주공간의 평화적개발과利用은 모든 나라들의 신성한 평등적, 합법적권리이다.

조선의 자주, 자강, 자립의 평화적인 우주개발과 위성제작, 발사기술에 대해 세계의 공정한 여론은 전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하고있다.

《주체사상이 우주에 도달하였다》, 《조선은 적대세력의 부당하고 범죄적인 제재 위협에 절대로 굽어들지 않는다》, 《조선이 자강력을 발휘하여 이룩하고있는 위성발사와 같은 모든 성과들은 정의는 조선인민의 편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도전도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공화국의 결심과 의지를 흔들어놓을수 없다.

조선의 위성은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싣고 최고수뇌부가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우주를 향해 앞으로도 더욱 기세차게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김춘원



철령 아래 사파바다

지금 철령아래 자리잡은 고산파수종합농장에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과일대풍이 펼쳐져 온 나라에 기쁨과 환희를 안겨주고있다.

가지마다 주먹만 한 사과들이 주렁져 하늘땅에 사파향기 차넘치고 물감을 들인것만 같은 빨간 사과들로 하여 마치 철령아래에 붉은 주단을 펼쳐놓은듯 한 이 장쾌한 풍경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고있다.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세계굴지의 청춘파원으로 전변된 고산파수종합농장의 끝간데 없이 펼쳐진 사파나무마다에 먹음직스러운 사과들이 가득 주렁진 현실은 흥하는 공화국의 기적과 전변의 모습을 더욱 이채롭게 해주고 있다.

사파는 예로부터 우리 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이다. 특히 고산파수종합농장의 사과들은 맛도 달고 쫑하여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이

가는 자주와 선군의 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비렬한 제재소동에 매달리며 매일같이 갖은 악착한짓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써도 놀래울수 없는것이 자주와 존엄에 사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고 그 어떤 책동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는것이 자강력의 기치높이 나아가는 공화국의 진군길이다. 고산땅에 펼쳐진 사파바다, 과일대풍은 이 진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찾으시는 공장과 농촌, 어촌과 사회주의대건설장들마다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전진하고 발전 할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무한대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이 땅에서는

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조선로동당을 충직하게 받아들여온 인민들을 행복의 절정에 옮려 세우시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 인민이 잘 살고 행복해지려면 오직 믿을것은 자기 힘밖에 없다고 하시며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심어주신 그이시다.

찾으시는 공장과 농촌, 어촌과 사회주의대건설장들마다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전진하고 발전 할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무한대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이 땅에서는

년대를 뛰여넘는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휼물아치고있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세계적경쟁력을 가진 국산제품들이 쏟아져나오고있다.

고산땅에 펼쳐진 풍요한 과일작황도 현명한 그 령도의 손길아래 마련된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세해전 이 농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언제나 마음씨오신 어버이장군님의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꽂피워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 이듬해 또다시 그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산파수농장을 세계적인 과일 생산 기지로, 무통도원으로 꾸리고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는것으로써 농장력

와 년대를 뛰여넘는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휼물아치고있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세계적경쟁력을 가진 국산제품들이 쏟아져나오고있다.

고산땅에 펼쳐진 풍요한 과일작황도 현명한 그 령도의 손길아래 마련된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세해전 이 농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언제나 마음씨오신 어버이장군님의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꽂피워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 이듬해 또다시 그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산파수농장을 세계적인 과일 생산 기지로, 무통도원으로 꾸리고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는것으로써 농장력

가 휘도록 주령주령 열린 사파알들과 하늘땅에 차넘치는 과일향기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 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한그루, 한그루의 과일나무마다에 자기들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농장종업원들의 당에 대한 충정심, 불타는 애국심이 높은 고귀한 결실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그리도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아들여 자기들의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쳐 고산땅에 펼쳐놓은 과일대풍, 풍요한 사파향기는 자기 힘을 믿을 때 이 땅에 반드시 행복의 래일이 오고야말것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진정 고산땅에 차넘치는 사파향기,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향기, 과일향기 아니다.

그 향기는 시간을 다투며 이 땅우에 솟아오르는 강국건설의 숨결이고 인민들이 머지않아 향유하고 마음껏 누리게 될 행복의 향기이다.

김새벽



지금 공화국의 함북도 북부지역에서는 큰물 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이 전국적, 전인민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폐년에 없는 큰물 피해를 가시기 위한 국

화가 화로

이 지구상에 인류가 생겨나 수백만년이 흘러갔지만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재해는 인간생활에 막대한 재난을 들씌우곤 한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수십수백년동안 이루어놓았던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혹심하게 파괴하고 있다. 재해로 삶의 거처지를 하루아침에 잃고 한지에 나앉는 사람들이 살길이 막막하여 터치는 통곡소리는 행성의 어디서나 울리고 있다.

한마디로 거대한 재해는 수많은 가정들의 삶을 파괴하고 운명의 미래를 란도질 한다.

백성을 멀리하는 악한 정치하에서는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재해가 더 큰 피해로 인민들에게 들씌워진다. 이로 하여 당국에 대한 민심의 불만이 고조되고 정권의 인기도가 떨어지는 것도 폐사로운 일로 되고 있다.

취임초부터 불길한 화재들이 일어났던 남조선의 이전 리명박 정권은 『불로 시작하여 불로 망한다』는 항간의 거센 비난여론에 시달려야 했고 임기전기간 각종 수많은 재해가 발생하여 세인의 지탄을 받아왔다.

화 와 복

가적인 복구전투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현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이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끔찍한 참변으로 수년이 지난 오늘도 인민들의 항의 규탄을 받고 있는 현 집권세력이 메르스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무능한 정부』, 『살인정부』로 인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당시 현 집권자는 메르스 전염병이 발생한지 14일이 지나도록 이 병과 관련한

회의 한번 열지 않았다. 그러니 대책을 세우기는 고사하고 정확한 사망자 수와 격리된 환자수도 몰라 남조선 각계의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번에 경주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남조선에서는 『〈정부〉의 허둥지둥하는 모습과 늑장대응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불신만 더 키우고 있다.』, 『〈정부〉의 무능파 무책임은 『세월』호 참변 이후 조금도 나아진게 없다.』는 각계의 비난이 비발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러던 피해지역주민들의 어둡던 가슴에 얼마 안 있어 밝은 해빛이 스며들었다.

나라의 최고종대사인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 문제들을 토의하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라선시 큰물 피해 복구대책 문제가 중요의제로 토의되고 인민대가 라선시 피해 복구 사업을 전적으로 맡아 당창전기념일 전으로 완전히 끝낼 때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

되였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후 피해 지역으로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받들고 총대신 페해복구장비들을 갖춘 군인들이 달려왔으며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온 나라의 관심과 지원 속에 짧은 기간에 피해복구가 끝나고 황홀한 새 집들이 일떠서는 기적이 창조될 수 있었다.

재난을 당했던 인민들은 원래 살던 집에 대비 할 수 없게 크고 황홀한 새 집들에 이사하는 꿈 같은 복을 받아안게 되었다. 영도자의 극진한 사랑 속에 궁궐 같은 새 집을 받아안고 멜감과 가을 무우 배추가 푸르싱싱 자라는 터발까지 가지게 된 피해지역인민들은 걱정의 눈물들을 쏟았고 그들이 웨치는 로동당 만세소리, 『김정은원수님 만세!』의 우렁찬 함성은 온 나라에 메아리쳐졌다.

그때와 같은 사변이 공화국에서는 지금 또 다시 펼쳐지고 있다. 최근 공화국의 최북단에 자리잡은 함북도 북부지역에서 입은 큰물 피해는 지난해의 라선 피해보다 규모가 몇 배나 더 크고 재앙적인 것이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있어도 불행에 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공화국에서는 국가의 정책으로 되고 있다.

200일 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 돌릴 때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호소문을 받아안고 온 나라 인민들은 소리없는 울음을 울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조성된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당은 200일 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전환시키고 난국을 타개할 중대결단을 내리였다.

호소문은 온 나라를 격동시키고 북부피해복구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였다.

려명거리건설장을 비롯

한 200일 전투의 주요전역들에 전개되었던 인민군

군인들을 포함한 방대한 건설력량과 수단들이 북부피해복구전투에 이동전개되어 복구전투에 돌입하였으며 온 나라의 지원 속에 건설자재들과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들이 피해지역 주민들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있다.

군민이 한정어리가 되어 피해복구를 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뭉청 끊어져나갔던 철길로 반들에 새 철길이 놓이고 파괴되었던 중요도로들이 기본적으로 복구되었으며 전력공급과 통신이 보장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창조되고 있다.

시꺼먼 감탕이 쌓였던 거리들에서는 환한 가로등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본사기자 박철남

시

우리는 똑똑히 보여주리라

김태룡

오, 북부전선 여기는 대적투쟁의 최전방!

『체제위기』, 『봉피조짐』
『북급변사태』를 떠드는 역적폐당들아
보라, 똑똑히 보라
대재앙의 난국 보란듯이 가시고
북부전역에 전화위복의 승리
기적의 별천지 어떻게 펼치는가!

기쁨의 세월 행복의 나날에도
원수님만 믿고 따르는 이 나라 인민
불행과 재난이 겹쌓여도
더더욱 원수님 따라 노도쳐 일떠서는
이 땅의 힘은 일심단결!

그 일심의 힘 두려워하는 추물들이
있을 수도 이를 수도 없는 개꿈
『북봉파』의 나발 침없이 짖어댄다
죽음을 가까이 한 그 최후단말마에서
우리는 보고 있다
썩어문드러질 비참한 운명의 조짐을

오, 우리는 보여주리라
원수님 두리에 일심으로 뭉친 공화국
천만시련의 격랑도 더 좋은 래일의 꿈도
일심단결— 이 힘으로 이겨내고 꽂페
우는
이 나라의 장한 기상 영웅한 모습을



고무산 청년역—무산역 사이 수십 km의 철길 복구, 첫 열차 무산 도착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아껴주고 보살펴주신다.

그 이께서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라고 하시였다.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보배, 희망과 미래의 전부!

고금동서에 일찌기 있어 본적 없는 고귀한 명언이다.

누구나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을 통가하는 사랑은 세상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후대들을 위해 하시는 말씀 말씀에서 천만부모의 사랑을 다 합친대도 비길 수 없는 숭고한 미래 사랑, 후대사랑의 세계를 본다. 아이들에게 훌륭하고 좋은 것을 안겨주실 때마다 그이께서 늘 외우시는 말씀이 있다.

지난 7월 새로 건설된 평양 중등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너무도 만족하시여 원아들에게 멋쟁이 학원을 안겨주게 되니 하늘의 별이라

도 따온듯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시였다. 언제인가 원아들의 보금자리로 일떠선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현지지도 하실 때에도 부모없는 원아들에게 제일 좋은 멋쟁이집을 안겨주게 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듯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신 원수님이시였다.

그이의 말씀에서 어버이의

개 건된 송도원 국제 소년단 애영소를 돌아보시던 날에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애영소를 개건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멋에 학명을 한다고 하시였다.

세상에는 령도자가 많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제도에 따라 다르며 어떤 정치가 실시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했다.

지구상 여러 곳에서 그칠새 없는 분쟁과 혼란의 거듭되는 악순환으로 제일 막심한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것은 바로 어린이들이다. 기아에 시들려 방황하고 피난의 길에서 눈물을

뿌리며 『아동학대』의 희생물로 때 일찍 목숨을 잃고 있는 것 이 행성의 현실이다. 이처럼 어린이들이 사회악의 희생물로 될 때 공화국에 서는 아이들을 위한 전문병

세상에는 령도자가 많다. 원이 일어서 모든 어린이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고 기아와 빈궁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이 세계 도처에

후대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단지 애영소나 육아원과 애육원, 병원과 육아원, 애육원을 찾아주신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반들어 원아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니 얼마나 좋은가고, 그들이 당파 조국을 아버지, 어머니로 따르며 밝고 명랑하게 커서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이 될 것이라고,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하루하루를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고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시였다.

또 언제인가는 앞날의 조선은 우리 소년단원들의 것이며 동무들의 모습에 조국의 래일이 비껴있다고, 강성조선을 위하여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고 아이들의 가슴에 애국의 마음과 크나큰 사명감을 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의 정치가 꽂펴나는 공화국에서 아이들은 나라와 민족의 역군으로 더 잘 키우시려는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다.

현지지도에 따른 위인의 거룩한 세계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신다

극진한 사랑의 열도를 헤아려 볼 수 있다.

어디가나 아이들을 위한 유희장과 물놀이장, 궁전과 애영소들이 번듯하게 꾸려져 있고 최근에는 만경대 소년단 애영소와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이 멋쟁이로 일떠섰다.

그야말로 공화국은 아이들을 위한 별천지, 별세상이다. 후대들을 위해 사랑과 정을 다하시는 그 현신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더 없는 멋으로, 보람으로 여기신다.

의 웃음과 행복에서 더없는 인생의 멋, 인생의 보람을 찾는 령도자가 있는가.

어느 한 책에서 쓰기를 어린이 문제는 나라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제도에 따라 다르며 어떤 정치가 실시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했다.

지구상 여러 곳에서 그칠새 없는 분쟁과 혼란의 거듭되는 악순환으로 제일 막심한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것은 바로 어린이들이다. 기아에 시들려 방황하고 피난의 길에서 눈물을

서 계속 늘어갈 때 공화국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혜택이 늘어만 가고 있다.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부터 원아들에게 물고기를 매일 300g씩 먹이겠다고 하며 우리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왕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왕과 불행아. 공화국의 어린이들과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 사회의 어린이들의 차이는 이렇듯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민족의 넋이 살아있는 내 조국이 제일

예로부터 평양을 벼들이 우거진 수도라는 의미에서 《류경》이라 불리웠다. 이른 봄에 벼들 가지가 휘늘어지고 온갖 꽃이 만발한 평양의 경치는 이 세상 어느 경치에도 비길수 없을 만큼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그런 평양에 최근 몇 해 사이에 《류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련이어 일떠서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류경원, 류경치파병원, 류경김치공장, 류경장미원... 부르기도 좋고 친근감이 안겨오는 그 이름들을 새겨보느라면 판이한 두 제도의 실상이 안겨와 생각이 깊어지군 한다.

27년 전 내가 의거입북하여 평양시내에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 받았던 충격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때 내가 들었던 숙소는 보통강반에 자리잡은 레판이었는데 건물도 멋있었지만 내 마음을 더욱 끌어당긴 것은 《보통강려관》이라는 이름이였다.

그때 나는 홍분속에 《보통강려관》이라는 이름을 입속으로 외우고 또 외웠었다. 그후 평양시내를 돌아보면서도 인민대학습당, 풍년지침집, 은정차집, 황금벌역, 평양고려호텔 등의 간판들에서도 눈길을 뗄

지 못하였다.

민족의 넋이 사라지고 남의 정신이 뿌리내린 곳, 자기의 것은 간데없고 온통 남의 것이 판을 치는 남조선땅에서는 불래야 불수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 없었던 포근한 우리 이름들이였다.

거기에는 우리의 것, 우리의 문화, 우리의 민족정신과 넋이 맥맥히 살아숨쉬고 있었다. 외세가 마음대로 살판치는 《남이 사는 내 평》에서 근 40년을 살아온 나로서 내 나라, 내 민족의 말과 글이 이처럼 참신하고 아름다운 줄을 그때에야 알게 되었다.

내가 공화국에서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이 땅에 일떠서는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은 위치선정으로부터 건물의 지붕에 이르기까지 주체성, 민족성이 차넘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한 일군에게서 들은데 의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승리한 래일에 일떠서게 될 평양을 조선맛이 나게 건설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고 이를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고 한다.

정말이지 절세위인들의 송고 한 애국애족의 뜻이 그 어디에나 어려있는 내 조국이다.

평양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인민대학습당만 놓고보아도 그 렇게 말할수 있다. 민족적 특색이 살아나는 합각지봉형식에 에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사랑해온 기러기떼가 날아가는 것 만같은 인민대학습당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조선민족의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느끼운 한다.

내가 살던 서울에도 제나름대로 《자랑》하는 전물들이 적지 않지만 전물의 내용과 형식은 물론 전물간판에 이르기까지 전부 어느 나라에서 따왔는지, 흡쳐왔는지 제것이란 없는 오가잡탕이다. 도교인지, 런던인지, 뉴욕인지 모를 혼탕된 속에서 사람들도 점차 이질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남조선의 비극적 현실이다.

그러니 진정한 민족의 열이 살아 숨쉬고 역사국의 자존이 맥맥히 높뛰는 내 조국이 얼마나 좋은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애족의 령도따라 민족의 우수성을 더 활짝 꽂퍼우며 존엄높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가는 우리 공화국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원 교수 박사 정규진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만수 교고기상점이 자리잡고 있다.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상업봉사기지인이 상점은 외형부터가 사람들 눈길을 끈다.

청진한 감을 주는 색타일들, 푸른 유리를 씌운 물결모양의 꼭선미, 물우에 떠있는 배 같기도 하고 혜염치는 물고기를 련상시키기도 하는 만수교고기상점의 외형에 끌려 이곳을 찾았던 사람들은 화려하고 정교한 상점내부와

봉사원들의 친절성, 신선하고도 값비싼 상품들에 반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한번 와보고는 또다시 와보고 아무리 멀어도 우정이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우아한 무리등과 특색있는 조명장식, 은근하면서도 상쾌한 정서적감홍을 자아내는 상점안이 어찌나 정갈한지 개업한지 어려해가 지났지만 금방 문을

모를 그대로 어려있었다.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린 이곳 상점에서

신선한 고기류들과 알류들을

봉사받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

르겠다고, 구봉령일가처럼 비

가 오나 눈이 오나 도로관리

를 더 잘해나가겠다는 결의를

을 펴려한 평양시 대동강구역

도시시설관리소의 종업원들,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해빛은

어디에나 끌고루 비쳐든다며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펼쳐나설 마음을 펴려한 평양

시 만경대구역상하수도관리소

종업원들도...

깊은 생각에 잠겨 반영문을

한장한장 번지는 기자에게 림

미옥부원은 《경애하는 원수님

께서는 보통강반의 명당자리에

몸소 우리 만수교고기 상점부지

를 잡아주시고 2012년 1월과

3월 상점건설장을 찾으시여 공

사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

는데 그대로 어려있었다.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린 이곳 상점에서

신선한 고기류들과 알류들을

봉사받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

르겠다고, 구봉령일가처럼 비

가 오나 눈이 오나 도로관리

를 더 잘해나가겠다는 결의를

을 펴려한 평양시 대동강구역

도시시설관리소의 종업원들,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해빛은

어디에나 끌고루 비쳐든다며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펼쳐나설 마음을 펴려한 평양

시 만경대구역상하수도관리소

종업원들도...

깊은 생각에 잠겨 반영문을

한장한장 번지는 기자에게 림

미옥부원은 《경애하는 원수님

께서는 보통강반의 명당자리에

몸소 우리 만수교고기 상점부지

를 잡아주시고 2012년 1월과

3월 상점건설장을 찾으시여 공

사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

는데 그대로 어려있었다.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린 이곳 상점에서

신선한 고기류들과 알류들을

봉사받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

르겠다고, 구봉령일가처럼 비

가 오나 눈이 오나 도로관리

를 더 잘해나가겠다는 결의를

을 펴려한 평양시 대동강구역

도시시설관리소의 종업원들,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해빛은

어디에나 끌고루 비쳐든다며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펼쳐나설 마음을 펴려한 평양

시 만경대구역상하수도관리소

종업원들도...

깊은 생각에 잠겨 반영문을

한장한장 번지는 기자에게 림

미옥부원은 《경애하는 원수님

께서는 보통강반의 명당자리에

몸소 우리 만수교고기 상점부지

를 잡아주시고 2012년 1월과

3월 상점건설장을 찾으시여 공

사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

는데 그대로 어려있었다.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린 이곳 상점에서

신선한 고기류들과 알류들을

봉사받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

르겠다고, 구봉령일가처럼 비

가 오나 눈이 오나 도로관리

를 더 잘해나가겠다는 결의를

을 펴려한 평양시 대동강구역

도시시설관리소의 종업원들,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해빛은

어디에나 끌고루 비쳐든다며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펼쳐나설 마음을 펴려한 평양

시 만경대구역상하수도관리소

종업원들도...

깊은 생각에 잠겨 반영문을

한장한장 번지는 기자에게 림

미옥부원은 《경애하는 원수님

께서는 보통강반의 명당자리에

몸소 우리 만수교고기 상점부지

를 잡아주시고 2012년 1월과

3월 상점건설장을 찾으시여 공

사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

는데 그대로 어려있었다.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어린 이곳 상점에서

신선한 고기류들과 알류들을

봉사받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

르겠다고, 구봉령일가처럼 비

가 오나 눈이 오나 도로관리

를 더 잘해나가겠다는 결의를

을 펴려한 평양시 대동강구역

도시시설관리소의 종업원들,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해빛은

어디에나 끌고루 비쳐든다며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펼쳐나설 마음을 펴려한 평양

시 만경대구역상하수도관리소

종업원들도...

깊은 생각에 잠겨 반영문을

한장한장 번지는 기자에게 림

미옥부원은 《경애하는 원수님

께서는 보통강반의 명당자리에

몸소 우리 만수교고기 상점부지

를 잡아주시고 2012년 1월과

3월 상점건설장을 찾으시여 공

지나온 북남관계는 북과 남의 로동자들이 민족의 맏아들이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기수, 선봉대라는 진리를 가슴뜨겁게 새겨주고 있다.

돌이켜보면 북남관계가 불신과 대결의 악화일로를 걸을 때마다 대결과 분열의 장벽에 파편구를 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앞장에서 적극 추동해온 것은 북과 남의 로동자들이었다.

1999년 6월 남조선군부 호전파들의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로 발생한 서해 무장충돌 사건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가 폭발 직전으로 출발음치고 있던 때 북과 남의 로동자들은 그해 8월 평양에서 북남로동자 통일축구대회를 가지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지를 힘 있게 표시하였다.

6. 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북남로동자들의 련대와 실천은 전민족의 통일의지를 드높이는데 기여해왔으며 모든 민간 단체들의 련대교류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2000년 금강산에서 개최된 북남로동자 통일대회, 2001년 북남로동자 5.17 통일대회는 여러 계층별 단체들의 통일대회의 신호탄으로 되었으며 2001년 조국통일을 위한 북남로동자 회의(통로회)의 결성은 민족단결

통일운동에 앞장서온 북남의 로동자들

운동을 높은 단계에 올려세웠다.

북과 남의 로동자들은 2007년에 전세계로 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1절을 맞으며 남조선의 청원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5.17 북남로동자 통일대회를 또다시 진행하여 민족의 통일의지를 더 옥고 조시켰다.

그 후 남조선 보수집권 세력의 반통일책동, 동족 대결책동으로 북남사이에는 불신과 대결의 길이 깊어졌지만 북

자축구대회를 기어이 성사시킴으로써 북남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 없이 표시하였다.

당시 평양의 5월 1일 경기장에 나붙었던 『로동자가 앞장서서 조국통일 완수하자!』, 『만나야 통일이다! 우리는 하나다!』의 구호들, 하나의 언어로 서로 찾고 부르고 마음을 합쳐 단합과

통일의 공을 몰아가던 북과 남의 선수들,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민족대단결』, 『우리 민족끼리』라고 목청껏 웨치고 통일기를 흔드는 관람자들의 열정적인 응원 모습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강도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이제 더는 갈라져 살수 없음을 절감하게 하였다.

올해에도 북과 남의 로

동자들은 내외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온 민족의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조국해방 71돐을 계기로 북남로동자 축구대회를 열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년초부터 남조선 보수당국의 무분별한 동족 대결책동으로 하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자 최후의 버팀목이었던 개성 공업지구마저 폐쇄되고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전쟁위기가 조선반도 전역을 뒤덮었다. 반통일 세력들의 방해로 하여 가장 기본적인 서신교류와 실무 접촉 차단되고 있는 때인 지난 5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 위원회와 남측 량대로 총 사이의 북남로동자 통일축구대회 개최에 대한 합의는 곧 북남로동자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절절한 념원의 반영이자 의지로

내외반통일 세력의 반공화국적 대시 압살책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남조선의 로동자들과 로동운동단체들은 자주통일과 민족 단합의 가치를 높이 들고 미국의 핵전쟁책동 반대, 『싸드』 배치 반대, 『종북』 소동 반대 등 정의와 애국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뭉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패한다는 것은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북과 남의 로동자들은 앞으로도 민족의 맏아들답게 6. 15 공동선언, 10. 4 선언의 가치 밑에 힘을 합쳐 미움을 합쳐 장장 70여년 세월 지속되고 있는 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서 기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

송명수



죄 많은 자의 『안보위기』 타령

지금 남조선은 때 아닌 『안보위기』 소동으로 소란스럽다. 공화국의 정정당당하며 자위적인 핵탄두 폭발 시험을 걸고 벌어지는 『안보위기』 소동의 불을 다시 지핀 것은 두 말 할 것 없이 『안보위기』론을 『정권 안보』의 수단으로 써먹고 있는 보수집권 세력이다.

누가 『안보위기』를 몰아왔는가

남조선의 『안보위기』는 철두철미 동족의 평화와 화해 제의를 시종 거부하고 외세와의 반북 압살 공조에 미친 듯이 매달려온 박근혜 『정권』에 그 책임이 있다.

남조선에서 현 『정권』이 출현한 이래 공화국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숭고한 립장에서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해 왔다.

해마다 화해와 통일을 위한 성의 있는 립장을 발표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며 북남관계 개선의 혁신사를 새롭게 쓸데 대한 건설적인 제의도 하였으며 지난해 8월에는 주동적으로 북남고위급 긴급 접촉을 제의하고 실현하여 민족을 재난의 전쟁위기에서 구원하였다. 남측 당국이 통일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데 대해 호소도 하고 전민족적인 대회합을 가질 때 대한 획기적인 제의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남조선 보수당국은 어떻게 대답해 왔는가.

북의 핵능력이 고도화되어 남쪽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며 고래고래 소리지르지만 그 이른바 『안보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

걸으로는 『신뢰』를 떠들면서도 상대방을 『붕괴』시키기 위한 체제 대결책동에만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모처럼 마련되는 대화분위기도 외세와의 대규모 합동 전쟁연습으로 깨뜨리고 미국의 침단핵격수 단들을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 끌어들여 공화국을 엄중히 핵위협하였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남조선 당국은 인간쓰레기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베라살포 망동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적극 비호조장하고 남조선의 통일운동 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해서는 『종북』의 감투를 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반통일 망동에 기를 쓰고 매달렸다. 또한 6. 15의 옥동자이며 북남 경제 협력의 상징인 개성 공업지구를 완전 폐쇄하였으며 전연지대에서의 심리 모략 전면 재개와 같은 극악한 대결 소동을 벌리고 있다.

내외반통일 호전 세력의 이러한 가증되는 핵위협,

비롯한 국제 무대에서 동족을 악의에 차서 헐뜯어왔으며 유엔 『북인권 사무소』라는 것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었다. 『체제붕괴』 망상에 들뜬 남조선의 대결 광들은 해외에 나가 있는 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집단 학살 카드로 백주에 감행하는가 하면 대화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기 위한 제재 소동에만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이처럼 박근혜 패당이 집권 후 지금까지 한 일이란 동족이 내미는 선의와 아량의 손을 한사코 뿌리치고 북남관계 개선이 아니라 외세의 발뒤꿈치에 매달려 공화국을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고립 압살하기 위한 대결과 전쟁책동뿐이다.

내외반통일 호전 세력의 이러한 가증되는 핵위협, 보려고 지랄발광하고 있는 것이 박근혜 역적 패당이다.

저들의 대화부정, 제재와 압살 일변도 정책이 오늘의 사태를 몰아왔다 는 것을 깊은 인정하고 『대북정책』 전환에 나와야겠으나 어리석고 암둔한 박근혜 『정권』은 『제재』와 『자멸』 망언을 더욱 요란스레 짖어대

고 있다. 집권자 자신이 『북정권』을 끝장낼 각오를 해야 한다.』며 반북 전면 대결을 선언하고 그 아래의 군부 호전 광들과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평양초도화』, 『전쟁지휘부제』, 『제재』를 통해 북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겠다는 처방이 약효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제재 강화』가 유일한 답이라고 보고 여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조작된 유엔 『제재』들이 아무런 맥도 추지 못했는데 그 무슨 『북의 숨통을 조일 제재』를 또 만들어낸다며 어리석게 놀아대고 미국의 핵전략 폭격기 『B-1B』를 비롯한 전략 자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대북 무력 시위』를 한다며 분주 탕도 피워대고 있다. 다음 달에는 미국과 함께 공화국의 전략 대상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공중 합동 군사 연습도 벌린다고 한다.

이것이 불는 불에 더욱 키질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라는 것은 두 말 할 여지가 없다. 짐승도 한번 빠진 함정에는 다시 빠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미련한 박근혜 패당은 제 함정

을 더욱 깊이 파는 줄도 모르고 대결 일변도, 제재 일변도에로 나가고 있다.

그 노는 꼴이 얼마나 한심하고 억울하면 남조선의 언론들, 전문가들이 매일 같이 『제재』를 통해 북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겠다는 처방이 약효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제재 강화』가 유일한 답이라고 보고 여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 『안보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종북』이니 뛰니 하며 수다스럽게 놀아대니 얼마나 철면피한 자들인가.

외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싸드』를 끌어들여 남조선인민들을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핵공격 수단의 파괴가 될 운명에 처하게 하고 정세를 폭발국면의 핵전쟁 국면에로 몰아가고 있는 박근혜 역적 패당이야 말로 민족의 심판대에 올려세워야 할 특등 죄인이고 민족의 재앙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자가 권력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불안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바라지 않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철민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위력 앞에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열이 빠져도 단단히 빠졌다. 그때도 없이 《북정권을 끌어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 하라고 고아대는가 하면 《북수뇌부를 초토화하겠다》. 《평양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 며 호전적인 망발들을 마구 내뱉고 있으니 말이다.

이것은 저들이 처한 전략적 혈세를 만회할 수 없는 조건에서 상대에 대한 국도의 공포심으로부터 오는 광증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동족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을 애써 감추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니 《드레즈덴 선언》 이니 하는 따위의 궤진 너울을 쓰고 어떻게 하나 《흡수통일》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날뛴 현 집권자였다.

하지만 현 집권자가 그토록 애하게 《변화》 나 《급변사태》 를 갈망했지만 공화국은 훈들리지 않는 요새이다.

오히려 《제재와 압박》 이 강하면 강할수록 공화국은 더욱더 당당한 핵강국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올해에만도 수소탄시험에서 성공, 지상대지상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의 시험발사성공,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 등.

지난 2일 현 집권자는 해외행각을 떠나면서 전송나온 《새누리당》 대표에게 《북내부의 급변상황이 우려된다》. 느니 뭐니 횡설수설하였다.

그로부터 한주일만에 공화국은 환각증에 사로잡힌 현 집권자에게 핵탄두폭발시험 성공으로 된 타격을 안겼으며 진짜 《급변상황》 을 맞은 것은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였다.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바로 보지 못한 현 집권자의 쓰

디션 패였다.

극도의 패배감과 공포감에 정신적 균형을 잃은 현 집권자는 더욱 무모한 광증에 매달리고 있다.

질량적으로 최고도에 이른 공화국의 핵위력 앞에 완전히 무기력해진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지금에 와서 《북정권교체》 를 노린 국도의 대결방법을 로그적으로 휘둘러내고 있으나 리성 있는 사람 치고 그에 귀기울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늘같이 믿는 미국상전도 공화국과의 싸움에서 평전만 거듭하고 있는 판에 그 상전의 바지가맹이를 불잡아 사는 하수인의 이러한 발광은 가소롭기 그지없는 것이다.

공화국은 이미 세계가 경탄하는 자위적인 불패의 핵강국이다.

이런 공화국을 어찌보겠다는 현 집권자의 행위야말로 썩은 닭알로 바위를 깨보겠다고 덤비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아직도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허황한 망상에 사로잡혀 《정권교체》 니, 《존립불가》 니, 《자멸》 이니 궤치고 있는 것은 리성을 잃고 통제불능의 상태에 처한 박근혜의 정신상태를 드러내보여주고 있다.

남조선 각계에서도 현 집권자가 《북정권교체》 를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정보도 없고 체제적인 위기판리 방향도 없이 저렇게 감정적으로 나가는 〈대통령〉 이 북의 핵보다 더 불안하다》. 《현재 군의 능력으로 북지도부를 타격하겠

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불가능이다》 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족대결에 미쳐버린 현 집권자가 발광할수록 차례지는 것은 각계의 비난과 조소뿐이며 앞당겨지는 것은 그들의 비참한 종말뿐이다.

김연희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는 해외에서도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이 높이 떨쳐지고 있는 오늘 해외동포 조직들과 각계 인사들은 동족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결고 들며 외세와 함께 제재와 압박 소동에 미쳐날뛰는 남조선의 바근혜 억적 폐당을 단죄 규탄하는 목소리들을 높이고 있다.

9월 5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미국과 남조선 보수派당의 《싸드》 배치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동북아시아나라들과 남조선인민들의 한결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 부수호 전세력이 《싸드》 의 남조선 배치를 강행하려고 발광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싸드》 를 남조선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저들의 대아시아지배와 폐권 전략에 따라 군사적 우세를 차지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년과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싸드〉》 는 북핵 위협을 억제할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다》 고 청을 돌구며 《싸드》 를 신처럼 믿기를 강요하면서 군사적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으며 남조선인민들 속에 불안을 조장하고는 그 심리를 리용하여 《싸드》 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목단강지구협회 부회장도 14일 담화를 발표하여 특등대국노 박근혜 역적을 단호히 징벌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는 박근혜 역도는 어중이떠중이 반공화국 모략단체들을 내몰아 반공화국 빠리를 살포하고 방송까지 불어대다 못해 《싸드》 까지 끌어들여 남조선을 핵 전쟁 마당으로 만들려는 미국 말 잘 듣는 수입 삽살개, 청와대 마녀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재중조선인총련합

회 목단강지구협회 전체 회원들은 고유한 조선녀성의 이름을 더럽히며 미친개처럼 분별 없이 날뛰는 미국의 뉴거리 앙무새, 늙다리 개를 때려잡을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재일동포들도 박근혜 폐당의 반민족적 망동을 규탄하면서 민족자주, 민족 대단결의 기치 밑에 조국 통일을 이루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설 것을 결의하였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는 12일 담화를 발표하여 민족자주, 민족 대단결의

같은 날 재일본조선류 학생 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새 세대 재일조선류 학생들은 백두의 천출명장이 시며 절세의 애국자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통일의 향도성으로 조선청년운동의 위대한 령도자로 받들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 주신 조국통일 3대 현장과 혁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우리 민족의 축원인 조국통일을 이루하기 위한 투쟁에 청춘의 열정을 깡그리 바쳐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민족의 단합된 힘은 자주통일 운동의 원동력이다.

민족의 통일 위업에 도전하며 반공화국 제재와 체제 대결 소동에 미쳐 날뛰는 박근혜 역적 폐당을 단죄 규탄하는 해외동포들의 분노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거세게 울려 퍼질 것이다.

본사기자 현은경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남조선 보수당국이다. 남조선 강점 미군이 각종 유독성 물질들을 대량 뿐 출시켜 민족의 삶의 터전을 불모지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항변 한마디 못하는 쓸개 빠진 남조선 보수당국이다.

더우기 동족 대결에 미쳐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재앙을 몰아온 미국의

《싸드》 를 끌어들이려고 발광하는 박근혜 역적 무리들이 그 무슨 《주민 안전》 이니, 《령도파괴》 니 하고 떠드는 것은 언어도 단이고 철면피의 국치가 아닐 수 없다.

입은 비뚤어져도 주라는 바로 불렀다고 박근혜 《정권》 이 공화국의 핵무력 강화 조치를 시비 중상하고 동족을 모해하기 위해 발악할 수록 그것은 스스로 제 목을 더 바싹 조이는 결과를 초래 할 뿐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스스로 제 목을 조이는 모략 소동

을 중지해야 한다느니 하는 너두리를 끌어놓았다.

공화국이 지금까지 진행한 5차례의 핵 시험들에서 방사성 물질 투출 현상이 없었으며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주변 나라들도 하나같이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단행된 핵 시험이 후 중국과 로씨야, 일본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그에 대해 인정하고 미국과 남조선의 군부,

은 만리마의 속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공화국의 핵무력 강화에 국도로 질겁하여 벌리는 추악한 모략나발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남조선의 보수당국은 그 무슨 《주민 피해》 와 《령도 파괴》 에 대해 운운 할 체면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다.

남조선 강점 미군에게 21세기 흑사병이라 일컫는 탄저균 실험장으로 남조선을 내맡기는 것도 부족하여 가습기 살균제와 콜레라 전염병 사태를 초래하여 인민들의 생명을 향상

하는 박근혜의 닭고집이 우기는 《싸드》 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의 생명 안전이 위태로워지고 닦여리로 고안해낸 《불순세력》 사회 불안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때문에 남조선에서는 또 《종북》 소동이 한바탕 일게 되었다.

동족 대결의 닦여리 때문에 북남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 공화국은 지난 기간 박근혜가 동족에 대해 할 짓, 못 할 짓을 다 했어도 통일의 동반자로 여기고 북남 관계 문제, 민족 문제를 함께 풀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동족의 선의와 아량에 칼을 빼들고 《흡수통일》, 《정권교체》 소동으로 대답하고 있다.

미국의 침략적인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담보하는 동족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한사코 없애려고 미국의 등에 업혀 별의 별 흥한 짓을 다하고 있다.

미국이 없으면 바람빠진 풍선과 같은 미국산 폐닭 박근혜, 남조선인민들이 그를 《닭그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옳다.

북핵에 맞서려면 미국 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편안하고 해도 《닭그네》 를 한시바삐 권력의 해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로 박근혜의 닭고집이 우기는 《싸드》 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의 생명 안전이 위태로워지고 닦여리로 고안해낸 《불순세력》 사회 불안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때문에 남조선에서는 또 《종북》 소동이 한바탕 일게 되었다.

동족 대결의 닦여리 때문에 북남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

공화국은 지난 기간 박근혜가 동족에 대해 할 짓, 못 할 짓을 다 했어도 통일의 동반자로 여기고 북남 관계 문제, 민족 문제를 함께 풀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동족의 선의와 아량에 칼을 빼들고 《흡수통일》, 《정권교체》 소동으로 대답하고 있다.

미국의 침략적인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담보하는 동족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한사코 없애려고 미국의 등에 업혀 별의 별 흥한 짓을 다하고 있다.

미국이 없으면 바람빠진 풍선과 같은 미국산 폐닭 박근혜, 남조선인민들이 그를 《닭그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옳다.

북핵에 맞서려면 미국 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편안하고 해도 《닭그네》 를 한시바삐 권력의 해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본사기자 김정혁

자멸을 초래 할 어리석은 시도

공화국에는 그 어떤 제재도 통할 수 없음을 박근혜는 너무도 모른다.

제재가 강할 수록 보복의지만 더욱 강해지는 공화국이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북핵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박근혜의 《완전히 다른 방식》 이라는 《북핵 해법》 이 어떤 것인가.

하나는 《강력한 대북 제재》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올해 초 공화국의 첫 수소탄시험을 구실로 조작된 《제재 결의》 는 《강력한》 것이 아니었는가?

《유엔 70여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징벌》, 《핵 포기》 가 아니라 다

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할 《공조》 라고 박근혜도 헤벌쭉하여 떠들었던 것은 아전인수격의 공연한 객기였는가?

그럼에도 《강력한 대북제재》 를 또 떠드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 적대 세력이 6개 월나마의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가 물거품이 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제재는 미국의 북부파

제재를 통해 《제재 결의》 가 시행되는 한

제재는 미국의 북부파

제재는 미국의 북부파

제재는 미국의 북부파

경제나 미국의 《인종》 을 받아야만 권력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꾸두각시 정치권만 보아왔고 그 생리대로 집권하고 있는 박근혜가 공화국의 존엄과 자위, 자강력에 대해 알력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또 다시 제재 타령을 외우는 것이다.

천동에 기겁한 암탉모양으로 청와대 구석에서 전화통을 두드리며 제재를 구걸해보았던 자 미일

그자 말장난이지.》, 《전쟁이 일어나면 북은 핵으로, 우리는 닦여리며 주동으로 싸우기 때문에 100% 승산이 없다. 북이 우두머리이고 〈한국〉 은 말만 하는 줄개다.》, 《한판 불자고? 북에서 핵미사일과 휴전선에 있는 아포들을 쏘면 어쩔 건데.》,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는 〈한국〉 이 무슨 조치를 취한다고 야단인지 이해할 수 없다.》, 《북은 핵실험을, 〈한국〉 은 닦실험을 하고 있다. 북의 암을 옮려서 성이 나게 하는 것이 북핵 핵법이냐? 북의 성을 옮려준다고 핵포기하겠나? 이 무슨 닦짓이냐?》 …

한편 괴뢰 국방부는 그 무슨 《3단계 맞춤형 억제 전략》 이라는 것을 공개하

놓은 평들이다.

최근 미국 언론 《워싱턴 타임스》 나 군사전문가

화근정 이를 제거해야 한다

얼마전에 단행된 공화국의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으로 남조선내부가 아비규환의 대수사장이 된 속에 야당들과 대북전문가들 속에서 박근혜 『정권』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금 그들은 리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의 집권기간 북의 핵미싸일능력이 급속히 고도화되었다고 하면서 현 당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는 북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 당국자가 올해 들어와 미국주도의 유엔 『제재』에 편승하여 개성공업지구까지 폐쇄하며 초강도제재를 떠들어댔지만 북은 미싸일을 계속 쏘아올리고 5차 핵시험까지 단행하였다. 북파의 협상에 나서는 것만이 유일한 대응책이라며 보수당국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 있다. 『한겨례』, 『경향신문』을 비롯한 언론들도 올해 들어와 련이어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북의 핵무기 강화조치는 보수당국이 김대중, 로무현 『정권』의 『해별정책』을 『펴주기』라고 헐뜯으면서 집요하게 추구해

온 대결일변도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실례라고하면서 지금이라도 정책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조선의 박근혜는 『안보위기』 타령을 하며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 만을 떠들고 있다.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동족대결과 전쟁만 고집하며 황천길을 스스로 재촉하는 청와대 마녀의 망동은 지금 온 겨레의 치솟는 증오와 분노심만 자아내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지금 조선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처하여 있다.

이것이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적 대세력들의 로그적인 반공화국제재 압살책동, 북침핵전쟁 소동에 기인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 없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랜 기간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매여달리면서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범죄적 책동은 지금에 와서 그 도수를 넘어섰다.

그 무슨 『인권』이니 뛰어 하며 제재와 압력

소동을 벌리는 것도 성차지 않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많은 핵전쟁 장비들을 끌어다놓고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허울 밑에 남조선 호전 세력들을 끌어들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키리졸브』, 『독수리 16』, 『울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북침 핵전쟁 연습 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린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시간과 날이 갈수록 더욱 더 로끌화되는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에 핵무력 고도화로 대응하는 것은 공화국의 응당한 자위권 행사이다.

문제는 박근혜가 정의의 핵과 침략의 핵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곳에서 불통치를 들고 분별 없이 날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돌격 대대로 나서 집안밖에서는 물론 해외에까지 나가 동족대결 망동을 부리며 북남관계를 험악한 국면에 몰아가는 박근혜 패당이다. 지어 상전의 다 궤진 핵 우산을 뒤집어쓰고 쑥대우에 오른 민총이 마냥 기고만장하여

『도발원점 타격』과 『응징』을 떠들다 못해 『평양 초도 토크』, 『전쟁지휘부 제거』니 하는 도발적 망발들을 거리낌 없이 쾌 치며 무분별한 광기를 부리고 있다.

이 무분별한 동족 대결책동이 최악의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으로 더욱 치닫게 하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종개 한마리 온 강물을 흐린다고 동족이 하는 일은 덮어놓고 반대하며 온갖 대결 소동을 벌리는 청와대의 암독사에 의해 남조선이 어떤 끔찍한 참화를 당할지 알 수 없다.

남조선 각계 충파 온 겨레가 미친년의 동족 대결 정책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화근정 어리는 제 때에 들어내야 후환이 없다. 끼고 있을 수록 차례지는 후파는 더욱 치명적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땅에 핵전쟁의 구름만 몰아오려고 분별 없이 날뛰는 박근혜 역적 무리에게 단호한 징벌을 내려야 한다.

본사기자 김 응 절

◆ 전략적인 내에 계속 매달리다가는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는 얼마 전 공화국에서 울린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에 대해 경탄을 보내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 남조선을 비롯한 반공화국적 대세력들은 아비규환이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 『강력히 규탄』, 『핵보유국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 …

표준화, 규격화 되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이 북침 핵 무기, 핵 기지들을 파괴할 무지, 사막지대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까지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최후 통첩이나 같기 때문이다.

『손자병법』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공화국은 핵무기 고도화로 미국에 런속 강타를 안기고 있다.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는 공화국의 핵 능력 강화는 『강대국을 적으로 마

주했을 때 평화를 이루기 위한 리성적인 방법』이라 고 평하였다.

미국으로서는 기절초풍이다.

『전략적인 내』는 거덜이 나고 공화국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발친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전략적인 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쉽다.

현 오바마 정권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니 뛰어 하는 비명을 지르며 수십 년간 이어진 념불만 외운다.

『위협』, 『제재』, 『응징』 …

즉 네마가 된 『전략적인 내』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소리다.

그를 위해 『추가 제재』, 『확장 억제』를 운운한다. 별로 새로운 소리가 아니라 『전략적인 내』의 연장일 뿐이다.

지난 3월 공화국의 평화 적위성 발사를 트집 잡아 조작된 『제재 결의안』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미국과 반공화국적 대세력은 『가장 강력한 미 군사적 정벌』, 『핵 포기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할 공조』라고 하였다.

오래 전부터 미국의 『핵 전략자산』들은 조선반도의 남쪽을 부지런히 드나

들고 그 주변에 항시적으로 배비되어 있다.

그러나 『강력한 제재』와 날로 강화되는 군사적 압박 속에서 공화국은 전략 잠수함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도 했고 핵탄두 폭발 시험도 성공 시켰다.

이제 그 무엇을 『추가』하고 『확장』 한다 해도 그 식이 장식일 뿐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책들의 『추가 제재』에 대해 『다 뻔한 얘기』라고 일축하기까지 한다.

전문가들도 미국으로서는 조선파의 대화와 협상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한다.

물에 빠진자가 부여하는 지푸라기와 같은 『전략적인 내』에서 당장 보짐을 싸고 떠나야 할 오바마 정권의 단말마적인 발악을 본다.

공화국과의 핵 대결에서 만신창이 된 미국의 가련한 종말을 본다.

미국이 『제재』, 『응징』, 『전략적인 내』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종말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이 있어 미국의 비참한 종말은 시시각각으로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 혜 성

삶의 권리를 투쟁으로 찾아야 한다

최근 남조선의 로동운동 동단체들이 박근혜 패당이 강행 추진하려는 『성파년봉제』와 같은 반인민적 악정을 반대하여 총파업에 걸기 시작해나서고 있는데 너무나도 응당하다.

『정권』의 자리에 들어 앉은 첫 날부터 오늘까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유신』 독재를 부활시키고 대기업들을 살찌우는데만 몰두하면서

수십만의 로동자 대중을 실업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바로 박근혜 패당이다.

지금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을 비롯한 각계 총동자들이 『박근혜 『정권』』을 로동자의 힘으로 끌어내자!』 등의 구호를 들고 총파업에 걸기 해나서고 있는 것은 수십만 명의 동자 대중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박근혜 패당이다.

평양화력 발전 합기업소 부지장장 박문철

이미 있던 『남북 협력 기지구 발전 기획단』

을 종전의 3개 과에서 1개 과, 1개 팀으로 대폭 축소해 버렸다.

반공화국 『인권』 모략과 동족 대결을 위한 기구들을 새로 내온 남조선 보수당국의 이번 기구 개편 놀음을 한마디로 통일부를 완전히 『동족 대결부』, 『반통일부』로 공식화 해놓은 것이다.

남조선 보수당국은 지금 『북인권 기록 센터』, 『탈북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북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하며 그 결과를 토대

로 『북인권 실태』를 알리게 된다고 공공연히 떠벌이고 있다.

공화국의 인권 실태를

알려면 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그만이다.

자기 를 낳아 키워 준 조국과 부모처자를 버리고 달아난 인간쓰레기들의 입에서 바쁜 소리가 나올리 만무하다.

더우기 문제는 남조선

다니며 원고를 써준대로 읽는 것을 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박근혜가 『대북정책』으로 내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대결 프로세스』, 『불신 프로세스』, 『전쟁 프로세스』로 라인되어 이미 시궁창에 처박혀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추구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북의

『제도 전복』과 『체제 통일』이라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역적 패당은 이번 통일부의 기구 개편 놀음을 통해 새로 조작해낸 『평화 정책』에서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북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이번에 『공동체 기반 조성국』에 새로 생겨난 『제도 전복』과 『체제 통일』이라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역행하고 집권자의 동족 대결 정책 실현의 돌격대, 청와대의 사환군으로 전락된 남조선의 통일부는 더 이상 존재할 한푼의 가치도 없다.

남조선 인민들은 희세의 동족 대결 패인 박근혜의 수족 노릇이나 하고 인간쓰레기들과 한짝이 되어 돌아가는 통일부를 당장 해체해 버려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최 광 혁

이 것도 군대인가

남조선에서 사병들에 대한 각종 구타가 만연화되고 있는 사실이 또 다시 알려져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 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국방부의 군사 법원 판결문을 조사하여 군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폭행과 가혹행위가 상상을 초월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사실에 의하면 90V의 전기를 발생시키는 윤일병 탈사 사건은 군부에서 벌어지는 폭행이 당시적으로 가해졌다고 울분을 터치고 있다.

물론 남조선 군에서의 이러한 폭행 사건들은 일상 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시기 사람들을 격

분시켰던 윤일병 탈사 사건은 군부에서 벌어지는 폭행이 일각에 불과한 것이였다.

문제로 되는 것은 현 집권자를 비롯한 집권 세력이 윤일병 탈사 사건 이후 군대 안의 폭행과 가혹행위 등

간 군사 분계선 일대에 배치된 부대들에서 자살한 사병이 15명이나 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병영 내에서 비일비재한 상관들의 가혹 행위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병이 100여 명에 달하고 있고 『자살 우려자』가 되어 심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병들은 3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각종

군부 우두머리들은 군수

기합과 집단 구타로 하여 장애자, 정신병자로 되고 있는 사병 수는 5만여 명에 달한다.

살인적인 폭행과 동등

이 규율은 고용군인 남조

선군을 유지하는 마지막 지령점이다.

때문에 입대를 앞두었

기업체들과 짜고 성능이 불결한 군사 장비들을 끌어들여 막대한 돈을 걸어 모아 『군 페어』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우의 사설들은 폭력과

부패로 썩어가는 남조선

군부의 일면상에 지나지 않는다.

썩을 대로 썩은 군대 아닌 오합지졸을 놓고 동족 대결에 환장한 현 집권자와 발맞추어 『단호한 응징』, 『북수뇌부 초도 토크』, 『참수 작전』이니 하며 분별 없이 날뛰고 있는 군부 호전 광들이 가소롭기 그지없다.

집권층의 극악한 동족 대결책 동파문에 남조선의 청년들만 살인적인 매질과 욕설에 물려 정신 박약자, 대결의 희생물로 숨겨가고 있다.

본사기자 황진 옥



《싸드》가 발불일 곳은 없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싸드》 배치를 기어이 강행할 기도를 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언론보도들에 의하면 국방부가 《싸드》 배치최종지역을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롯데골프장으로 확정하고 그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7월 당국이 미국의 《싸드》를 성주군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때로부터 남조선의 각계층은 투쟁위원회들을 끊고 《싸드》 배치를 저지시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리였다. 하여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성난 주민들에게서 썩은 탈알과 물

병세례를 받고 여러시간 동안 감금되는 등 온갖 곤욕을 다 치르었다. 혼쭐이 난 보수폐당은 제3후보자를 결정한다 어쩌다 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반대 기운을 높이려고 갖은 술수를 다 써왔다.

어지간히 시일이 흘렀다고 생각한 남조선당국이 이 시점에서 또다시 《싸드》 배치지역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언론에 흘리는 것은 배치지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떠보려는 교활한 솔책이다.

하지만 보수당의 《싸드》 배치지 발표는 남조선인민들의 더 거센 찬 《싸드》 반대투쟁을

촉발시키는 서막으로 될 것이다.

성주군 초전면 롯데골프장은 북쪽으로 김천시와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금 김천시 주민들은 《싸드》가 롯데골프장에 들어서는 것을 결사반대할 각오에 넘쳐있다. 이미 김천주민들은 《〈싸드〉 배치반대 김천투쟁위원회》를 끝고 롯데골프장이 배치지역으로 확정될 경우 《시민들이 총궐기하겠다.》고 당국에 경고하였다.

거기에도 골프장에서 500m거리에 남조선 5대 종교의 하나님 원불교의 성지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하여 원불교 역시 《싸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그룹이 검찰 수사를 받는 속에서 기업 매출의 큰몫을 차지하는 주변나라의 눈치를 보느라 머뭇거리는 등 배치지 발표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결국 남조선당국이

《싸드》 배치지를 기어이 확정발표하는 경우 그를 둘러싼 남조선내부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이것은 보수 《정권》의 임기말통치력악화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싸드〉가 발불일 곳은 이 땅에 없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남조선의 민심이다.

침략적인 《싸드》를 끌어들여 남조선을 영원한 식민지로, 대국들의 각축전장으로 전락시키고 온 겨레를 핵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박근혜당의 만고역적행위를 남조선인민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남조선보수폐당은 《싸드》를 끌어들이는 것이 쉽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미련한 짓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신길원

나.》고 우박지르면서 그들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집권자의 본을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 것들도 서울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미국 상전파 함께

《북의 핵시험》이 심각한 위협》으로 되며 《〈싸드〉가 가능한 조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신속하고 지체 없이 전개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쌍

나발을 불어댔다.

이 모든 것은 공화국의 급속한 핵무력고도화에 기절초풍한 자들의 부질없는 객기에 불과하다.

원래 초보적인 믿음성도 담보되지 않는 《싸드》 따위로 공화국의 핵공격수단들을 막아보겠다는 발상자체가 무지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다. 미국이 지난 기간 《싸드》로 진행한 《요격시험》이라는 것들은 사전에 목표물의 발사시간과 속도, 타격목표, 비행경로 등을 파악한 상태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식으로 진행한 것들이다. 하기에 미국의 과학자들과 군사전문가들 속에서 《〈싸드〉의 성능이 부풀려졌다.》, 《〈싸드〉로는 북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솔

직한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다.

결국 《싸드》가 미싸일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남조선땅이 《싸드》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날아오는 핵공격세례를 받게 되어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북핵위협》이라는 기만적인 솔수로 《싸드》를 기어코 끌어들이려는 것은 정신착란증환자의 발작증세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문제는 박근혜와 그 폐당이 한사코 끌어들이려는 《싸드》라는 괴물 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무서운 핵참화를 들쓰게 된 다는데 있다. 지금 박근혜는 인민들이 죽던 살던 관계없이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권행사인 핵탄두 폭발시험을 악랄하게 걸고 들면서 한편으로는 《평양초토화》니, 《지도부제거》니 하고 떠들어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구실로 《싸드》 배치를 기어이 강행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현실은 남조선인민들이 참혹한 재난을 면하자면 모든 재앙을 불러오는 청와대의 대결악녀를 하루 빨리 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명성



최근 박근혜와 그의 졸개들이 그 무슨 《급변사태》에 대해 요란스레 떠드는 것을 보면 정말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까마귀 하루 열두번 울어도 까우소리뿐이라고 오강부끄 같은 그 개주동 이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리는 만무하겠지

헛된 망상을 버리라

만 이것은 공화국을 너무도 모르는 무지와 무식의 극치이다.

오늘 공화국이 정치강국, 군사강국으로 세계 무대에서 자기의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 제국주의 협세력의 고립 압살책동에 파감히 맞서나고 있는 것은 원자탄보다 더 위력한 일심 단결이 있기 때문이다. 일심단결의 위력은 인

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다. 멀리서 볼 것도 없이 얼마전에 발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보라.

200일 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

목청껏 불렀다. 하기에 지금 우리 경북도 피해지역인민들은 집과 가산을 잃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무서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으며 더 좋은 래일은 반드시 온다는 확고한 신심에 넘쳐있다.

그래 수령과 군민이 뜻과 정을 같이하는 이 거대한 일심단결의 화폭을 보고 그마위 개소리를 하는가. 너희들이 그토록 꿈꾸는 《급변사태》는 억년 가도 실현될 수 없는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역적 무리들은 까마귀 꿩 잡아먹을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 이 좋을 것이다.

함경북도 회령시 김목순

에로 전환시킬테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은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인민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가셔주기 위한 인민사랑의 최절정이다. 그때 우리 집안 아니 온 함부도 인민들은 어머니 당의 하늘같은 사랑에 눈물을 적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독립절을 축하합니다.

최근 남조선의 박근혜 《정권》이 《안보》의 구실밀ie 일본파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집권자 박근혜가 일본 수상파의 회담에서 그 협정에 대해 렌의하고 뒤를 이어 국방부, 외교부의 장관들이 일본과 실무적 협의를 벌리는 중이라고 한다.

저들의 동족대결목적 실현을 위해 백년숙적파도 서슴없이 한이불속에 드는 사대굴종적, 매국배족 적망동이 아닐 수 없다.

일본파의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말한다면 2012년 남조선의 이전 집

다가 내외의 뜻매를 맞고 도로 쑤셔 넣었던 것이다.

페비린 파거에 대한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 오히려 독도 강탈 행위, 과거 사와 푸책동으로 우리 민족에 대한 재침야망을 드러내고 있는 일본파의 협정체결은 반민족적 망동이라는 것이 당시 내외의 한결 같은 여론이었다.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반발과 규탄으로 하여 리명박 《정권》은 협정체결 1시간 전에 급기야 《연장》을 선언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때 현 집권자 박근혜도 리명박 《정권》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놀음에 대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은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새누리당》의 후보였던 박근혜가 남조선민심을 그려 모으기 위한 한갓 기만극에 불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자 일본파의 군사정보공유협정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미,

일, 남조선정보공유약정으로 체결하였는가 하면 지금은 한발 더 나아가 일본파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협동으로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이전 집권자와는 달리 박근혜는 교활과 음흉으로, 빠속에 배인 천일사대굴종으로 일본에 재침

의 길을 한걸음 한걸음 떠여주고 남조선 강토와 민족의 얼을 하나하나 섬겨왔다.

일본이 조선반도에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저들의 《주권》을 《존중》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으로 일본의 재침야망을 《인정》하였고 명백한 사죄도 없는 일본에게서 몇 푼의 돈을 받기로 하고 일본군성노에 문제를 《합의》 하여 일제의 죄악의 과거사를 《백지화》 하였다.

해외에 나가있는 외교관들에게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와 함께 표기하도록 지시한 것은 일본의 독도강탈 행위에 대한 명백한 비호였다.

친일행위를 미화한 혁사교과서의 《국정화》,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지배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한 문창국을 《국무총리》 후보로 내세운 것, 올해 《8·15경축사》라는데서 일본파의 《미래지향관계》를 운운한 것 등은 박근혜의 친일사대매국행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친일굴종은 박근혜의 변할 수 없는 유전인자이고 그 본성은 절대로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일본파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협동으로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이제 일본파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다면 일본은 저들의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남조선은 물론이고 전조선반도에 대한 침략의 눈과 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대동아공영권》의 옛 망상을 실현해보려던 일본의 재침책동이 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아무리 동족대결에 환장했어도 세세년년 기회만 노리며 재침의 칼을 갖고 있는 백년숙적을 제손으로 집안에 끌어들이는 것은 승냥이의 아가리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미는 미친짓이 아닐 수 없다.

동족의 선의와 아량에는 칼질을 하고 백년숙적과 한이불속에서 텅굴며 동족압살의 독심만을 드러내는 박근혜와 보수 《정권》의 반민족적 망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만고대역적이다.

저들의 집권 안정을 위해, 동족대결을 위해 미국의 《싸드》를 끌어들이고 핵무기를 끌어들이다 못해 백년숙적에게 침략의 길을 열어주는 박근혜 《정권》이 존재하는 한 조선반도의 평화는 말공부이고 우리 민족은 전쟁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치욕의 사대굴종과 매국배족으로 민족의 얼굴에 흙칠만 하고 동족대결 광증으로 전쟁위험만 증대시키는 박근혜 《정권》을 한시바삐 끌어내는 것, 이것은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이다.

백광수

인권지옥에서 울리는 소리

진실에 관한 두 얼굴, 우병우와 류경근

진실을 은폐하려는 사람은 청와대를 휘젓고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은 거리에 나앉는다. 우병우와 류경근은 《진실》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아우를 한 두 얼굴이다. 이 두 인물이

차량, 통신비처리 등 횡령의를 적시했다. 문제는 겸찰고발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다. 청와대는 우수석의 겸찰고발에 대한 사과나 인사조치는커녕 겸찰판을 협박하고나섰다....

같은 시기에 류경근 4. 16 《세월》 호 참사가 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세월》 호 특조위조사기 간보장과 특검도입을 요구하며 단식통성에 들어갔다. 그런데 지난 4. 13 《총선》에서 여소 애대가 실현되고 실제로 애3당은 가족협의회주장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다. 하지만 선거

때는 애3당 모두 《세월》 호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선거 이후엔 기득권체제의 혼란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새누리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 유가족들의 주장을 외면한 것이다.

류경원장은 자신의 폐이스북에 여소 애대와 공조약속에 희망을 품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차로, 현실로 뿐이었다고 탄식했다. 20대 《총선》에서 터져나온 혁명적민의 깊은 바닥에 《세월》 호 참사에 대한 깊은 슬픔과 분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는 사실을 빛의 속도로 망각한 것이다.

권력이 은폐한 진실은 거리에 나앉았다. 뜨거운 퇴약별 아래서 참혹한 슬픔과 슬픔을 덧씌운 악에 갇힌 예은이 아빠는 또 다시 끌이 어딘지 모를 싸움을 시작했다. 우병우는 당당하게 버티고 류경근은 무릎꿇고 호소한다. 우병우 앞에서, 류경근 앞에서, 도도한 정의의 이름 앞에서 파연 우리는 안전한가. 단 하나의 위안은 진실이 거리에 버려지는 순간 권력도 거리에 나뒹군다는 역사적 성찰이다.

(남조선잡지 《주간 경향》 2016년 8월 30일호에서 전재)